

## 영계에 있는 한 회원의 영과의 만남

작성일 : 2010년 12월 17일

작성자 : 미상

[ 기도하던 중, 섭리에 있다가 먼저 영계로 간 한 회원을 한번 만나 보라는 선생님의 숙제가 계속 생각났습니다.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, 그의 가족들이 사상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에, 그를 통해서 사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 볼 수는 없을까,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. 그때 그 영이 왔습니다. 영계에서 오기가 쉽지 않은데 선생님께서 과거 숙제를 내주신 적이 있어서 올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가족을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담담해하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. 그가 말을 건네 왔습니다.]

잘 있었니?

네 소식은 영계에서 가끔 듣고 있고

나는 지금 제림 준비하느라

열심히 회개하고 있어.

나 결벽증 있잖아.

영이 되어도 그 버릇이 어디 가니.

( “그런데 이 많은 빨래가 다 네 거니?” )

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야.

너를 위해서도 가끔 기도해.

우리 형부 말이야.

그는 너무 육적이어서 평소에도 걱정이 되었는데

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아.

세수를 안 하니

생각이, 사고가 자꾸 더러워져.

이제는 언니도 동생도...

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별로 미련이 없어.

여기는 육계에서와 같지 않아.

그 혈연관계라는 것

지상영계에서는 한 맺힌 영혼이 지상을 계속 떠돌며

지상의 것을 계속 붙들고 있기도 하지만

내가 있는 낙원만 해도

생각이 영계에 맞게 개방된 세계야.

내가 왜 나를 찾는 줄 알아.

우리 친척부터 시작해서 이 무리들...

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...

그러나 미련이 없어.

내가 육계에서 해줄 것은 다 해주고 왔으니까.

그들 책임분담이야.

자신들이 해야 할 기본을 제대로 안하니까

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야.

나의 친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석되다 보니

주님께 이로 인한 죄의식도 별로 없어.

나 원래 그렇잖아.

( “너는 주일 수요일 말씀은 열심히 듣고 있지? 어떻게 들어?” )

이곳에서 열심히 받아 보고 있어.

( “영계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?” )

그럼, 물론.

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

내 신앙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야.

내가 미련이 있다면

육계에 있을 때 선생님 말 듣고

외국 가지 말고 섭리 될 것을

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온 것이 한이야.

미국도 전도해야 하는데.

( “빨래의 주인은 누구야?” )

이곳에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.

( “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니?” )

나는 형제 사랑 실천을 하고 있어.

제림을 앞두고 현재 내가 넘어야 할 문제야.

( “선생님은 뵙니?” )

응. 선생님이 순회 다니셔.

나는 선생님을 직접 따라다니지는 못해.

선생님은 너무 바쁘셔.

전체를 관할하시지.

나는 한 구역을 맡고 있어.

선생님은 영계에서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셔.

( “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있어?” )

제가 구원에 이르게 말씀을 전해 주신 선생님

영원히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.

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전도되었으니

지금도 말씀을 마음판에 열심히 새기며 실천하고 있어요.

오직 선생님 그 불편한 그곳에서

속히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.